

《問奇集》에 나타난 16·17世紀 閉口韻尾[-m]消失 여부에 대한 小考

李 春 永*

— <目 次 —

- | | |
|----------------------|----------|
| I. 序 論 | III. 結 論 |
| II. 《問奇集》 深攝·咸攝 의 분석 | |

I. 序 論

《問奇集》은 저자가 앞서 발표한 <《問奇集》聲類계통 연구>¹⁾에서 언급했듯이, 명나라 萬曆年間(1573~1620)에 활약하던 江西 新建사람 張位가 당시 학생들에게 중국 문자의 올바른 讀音을 가르치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장위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 모르는 글자의 음을 편리하게 찾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일상 참고용 저서로 《問奇集》 두 卷을 저술하였다. 《問奇集》에서는 글자마다 「某音某」·「某音某 又音某」·「某 某何聲」의 直音형식으로 주를 달고 있는데, 모두 1,35組 정도가 있다. 이 자료들은 앞 聲類계통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明代北方官話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明代北方官話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問奇集》을 통해 16·17세기 실제언어에서 閉口韻尾[-m]의 소실여부를 살펴보려고 한다

* 영남대학교 강사

1) <中國語文學>第44輯, 523-560쪽 참고.

오늘날 중국어에서는 雙唇鼻音韻尾[-m]이 소실되어 상당의 舌尖鼻音韻尾[-n]에 합류되었다. 王傳德과 尙慶桢은 元나라 周德清의 《中原音韻》(1324年)에서 「凡」·「范」·「犯」의 글자들이 「寒山」部에 속하고, 「品」자가 「眞文」部에 속하는 것에 근거하여, 《中原音韻》이후부터 [-m]尾가 類化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17세기의 《等韻圖經》에서 「深攝」이 「臻攝」에 병입된 것을 근거로, 16·17세기 사이에 이르러 [-m]尾가 완전히 소실되어 [-n]尾가 된다고 추측하고 있다.²⁾ 《問奇集》은 16·17세기에 해당하는 萬曆年間の 저서로써, 그 중에 나타난 深攝과 咸攝 글자들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m]尾 존재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問奇集》 直音형식에서 보여지는 深攝과 咸攝 글자를 《廣韻》³⁾206韻으로 분석하여 그 변환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당시 北方官話의 실제언어상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아래에서는 중고음에서 [-m]尾의 독음을 가졌던 글자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問奇集》 深攝·咸攝의 분석

《問奇集》의 直音 1,357組 내외의 자료 중에서 深攝·咸攝의 자료는 모두 60組 정도이다. 비록 어느 정도의 제한성을 지니지만, 모두 당시의 언어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중 《廣韻》206韻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을 주요 근거로 해서, 당시의 언어실제상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주요 운모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王傳德·周慶德, 《漢語史》(第1版; 濟南, 濟南出版社, 1996.4), 102쪽 참고.
 3) 본고의 중고음 자료는 기본적으로 陳彭年重修·林尹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初版; 臺北市,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9) 《廣韻》을 참고하며 《廣韻》에 수록되지 않은 글자들은 宋 丁度의 《集韻》(初版; 臺北市, 學海出版社, 1986.11)를 참고하여 ()로 표기하며 《集韻》에도 수록되지 않은 글자들은 金 韓道昭의 《校正五音集韻》(第一版; 北京: 中華書局, 1992.9)을 근거로 하여 []로 표기한다.

1. 《廣韻》「侵」⁴⁾韻과 「眞」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侵韻字를 侵韻字로 주 단 것은 16組이며, 侵韻字를 眞韻字로 주 단 자료가 3組 보인다.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葦音信	葦	慈錦切	寢
	信	息晉切	震
枕音鎮	枕	直深切	侵
	鎮	陟鄰切	眞
鳩音痰	鳩	直禁切	沁
	痰	丑刃切	震

위의 예들에서는 侵韻[-iəm] 知系字 「枕」·「鳩」을 각각 眞韻開口3等[-iën] 知系字 「鎮」·「痰」로 주를 달고 있다. 이는 侵韻 知系字的 韻尾[-m]가 이미 [-n]으로 합병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글자들은 오늘날 漢語⁵⁾에서 [-ən]음으로 읽힌다. 그 외에도 侵韻[-iəm]인 「葦」字를 眞韻開口3等[-iën]인 「信」字로 주를 달아, 侵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나타낸다.

2. 《廣韻》「侵」韻과 「臻」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侵韻字를 臻韻字로 주 단 것이 1組 보이며, 아래와 같다.

4) 平聲으로 上聲·去聲을 대표한다. 아래도 이와 같다. 본고의 擬音은 王力, 《漢語史稿》(新1版; 北京市, 中華書局, 1980.6)에 의거한다.

5) 본고의 漢語는 漢語方言을 포함하지 않은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를 말한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怎音臻上聲	怎	[子吽切]	侵
	臻	側洗切	臻

위의 예에서는 侵韻[-iəm]字「怎」을 臻韻[-ien]字「臻」으로 주를 달고 있다. 두 글자 모두 오늘날 漢語에서 [-an]음으로 읽힌다. 이는 侵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나타낸다.

3. 《廣韻》「覃」韻과 「寒」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覃韻字로 覃韻字를 주 단 것은 6組이며, 覃韻字와 寒韻字가 서로 주단 것은 3組이다.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淦音幹	淦	古暗切	勘
	幹	古案切	翰
看音堪	看	苦寒切	寒
	堪	口含切	覃
沼音罕	沼	胡感切	感
	罕	呼旱切	旱

위의 예들은 覃韻[-əm]字와 寒韻[-an]字가 서로 주를 달아 覃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나타낸다. 위의 여섯 글자는 오늘날 漢語에서 [-an]음으로 읽힌다.

4. 《廣韻》「覃」韻과 「談」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談韻字를 覃韻字로 주 단 것은 2組이며, 覃韻字를 談韻字로 주를 단 것이 1組가 보인다.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嵐音藍	嵐	盧含切	覃
	藍	魯甘切	談

이 예는 覃韻[-ɒm]과 談韻[-am]이 합병했음을 나타낸다.

5. 《廣韻》「談」韻과 「寒」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談韻字를 寒韻字로 주 단 것이 1組 보인다.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儋音丹	儋	都甘切	談
	丹	都寒切	寒

위의 예는 談韻[-am]과 寒韻[-an]이 합병하였음을 나타낸다. 두 글자는 오늘날 漢語에서 [-an]음으로 읽힌다. 談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나타낸다.

6. 《廣韻》「鹽」韻과 「先」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鹽韻字를 鹽韻字로 주 단 것은 10組이며, 鹽韻字와 先韻字가 서로 주 단 것이 2組 보인다.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𪗇音邊	𪗇	府廉切	鹽
	邊	布玄切	先
㒼音檢	㒼	(九件切)	銑
	檢	居儼切	談

위의 예들은 鹽韻[-iɛm]과 先韻[-ien][iwen]이 합병하였음을 나타낸다. 이 글자들은 오늘날 漢語에서 [-ian]음으로 읽혔다. 鹽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나타낸다.

7. 《廣韻》「鹽」韻과 「仙」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鹽韻字를 仙韻字로 주 단 것이 2組 보인다.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漸音煎	漸	子廉切	鹽
	煎	子仙切	仙
占音戰	占	章豔切	豔
	戰	之膳切	線

위 예의 鹽韻[-iɛm] 「漸」은 오늘날 仙韻開口3等[-iɛm] 字인 「煎」과 함께 [-ian]으로 읽히고, 鹽韻[-iɛm] 照系字인 「占」은 오늘날 漢語에서 仙韻開口3等[-iɛm] 照系字인 「戰」과 함께 [-an]음으로 읽힌다. 당시에 鹽韻의 「漸」·「占」字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廣韻》「鹽」韻과 「添」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添韻字를 添韻字로 주 단 것은 3組가 보인다. 또한 添韻字를 鹽韻字로 주 단 것이 1組 보인다.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僭音漸	僭	子念切	木忝
	漸	慈染切	談

위 예의 鹽韻[-iɛm] 「漸」字는 오늘날 添韻[-iem] 「僭」字와 함께 [-ian]으로 읽힌다. 당시에 鹽韻과 添韻이 합병되었음을 나타낸다.

9. 《廣韻》「添」韻과 「先」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先韻字를 添韻字로 주 단 것은 1組 보이며,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殿音店	殿	都甸切	霰
	店	都念切	栎

위 예의 添韻[-iem]字인 「店」은 先韻開口4等[-ien]인 「殿」과 함께 오늘날 漢語에서 [-ian]음으로 읽힌다. 당시에 添韻 「店」字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廣韻》「咸」韻과 「寒」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咸韻字를 寒韻字로 주단 것은 1組 보이며,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蘸音贊	蘸	莊陷切	陷
	贊	則干切	翰

위 예의 咸韻[-em]字인 「蘸」은 寒韻[-an]字인 「贊」과 함께 오늘날 漢語에서 [-an]음으로 읽힌다. 당시에 咸韻 「蘸」字의 [-m]尾가 이머 [-n]尾로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廣韻》「咸」韻과 「銜」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銜韻字를 咸韻字로 주 단 것이 1組 보이며,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機音讒	機	楚銜切	銜
	讒	士咸切	咸

위의 예는 당시 咸韻[-ɐm]과 銜韻[-am]이 합병했음을 나타낸다. 두 글자는 오늘날 漢語에서 [-an]음으로 읽힌다.

12. 《廣韻》「銜」韻과 「刪」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銜韻字로 銜韻字를 주 단 것은 1組이며, 銜韻字를 刪韻字로 주 단 것은 1組 보인다.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監音奸	監	古銜切	銜
	奸(姦)	古顏切	刪

위 예에서 銜韻[-am]字인 「監」은 刪韻[-an]字인 「奸」과 함께 오늘날 漢語에서 [-ian]음으로 읽힌다. 당시에 銜韻 「監」字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廣韻》「嚴」韻과 「先」韻의 합병

《問奇集》의 直音에서 先韻字를 嚴韻字로 음을 주 단 것이 1組 보인다. 아래와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		
	字	反切	韻
牽音欠	牽	苦甸切	嚴
	欠	去劔切 ⁶⁾	釅

6) 陳彭年重修·林尹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初版; 臺北市, 黎明文化事業公司,

위의 예에서 嚴韻[-iɛm]字인 「欠」이 先韻開口4等[-ien]인 「牽」과 함께 오늘날 漢語에서 [-ian]음으로 읽힌다. 당시에 嚴韻 「欠」字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問奇集》의 直音에서 凡韻字를 凡韻字를 주 단 것은 3組 보인다.

Ⅲ. 結論

《問奇集》은 16·17세기에 해당하는 명나라 萬曆년간의 대학자 장위가 학생들을 위하여 저술한 일상용의 소학 참고서이다. 《問奇集》에는 명나라 북방관화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실제언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問奇集》에서 반영한 深攝와 咸攝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16·17세기 閉口韻尾[-m]의 소실여부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필자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閉口韻尾[-m]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廣韻》「侵」韻과 「眞」韻·「臻」韻의 합병

侵韻字를 眞韻字로 주 단 3組의 자료와 侵韻字를 臻韻字로 주 단 1組의 자료가 당시 侵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반영한다.

2. 《廣韻》「覃」韻·「談」韻과 「寒」韻의 합병

覃韻字를 談韻字로 주 단 1組의 자료가 覃韻과 談韻의 합병을 나타내고, 覃韻字와 寒韻字가 서로 주 단 3組의 자료와 談韻字를 寒韻字로 주 단

1976.9), 446쪽에 “欠去劔切, 俺於劔切今移五十七韻”라 하였다.

것이 1組의 자료가 당시 覃韻과 談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반영한다.

3. 《廣韻》「鹽」韻・「添」韻과 「先」韻의 합병

添韻字를 鹽韻字로 주 단 2組의 자료가 添韻과 鹽韻이 합병했음을 나타내고, 鹽韻字와 先韻字가 서로 주단 2組의 자료와 鹽韻字를 仙韻字로 주 단 2組의 자료·先韻字를 添韻字로 주 단 1組의 자료가 添韻과 鹽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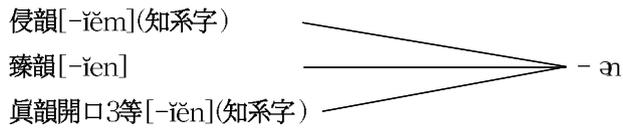
4. 《廣韻》「咸」韻・「銜」韻과 「寒」・「刪」韻의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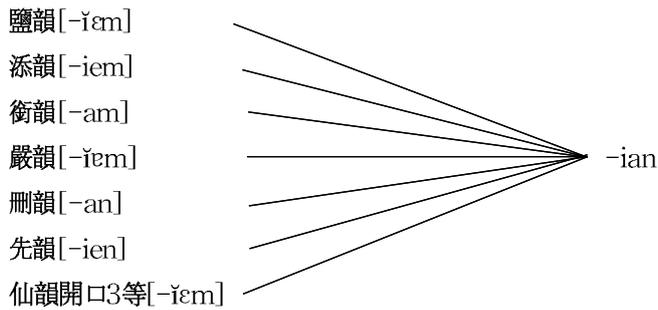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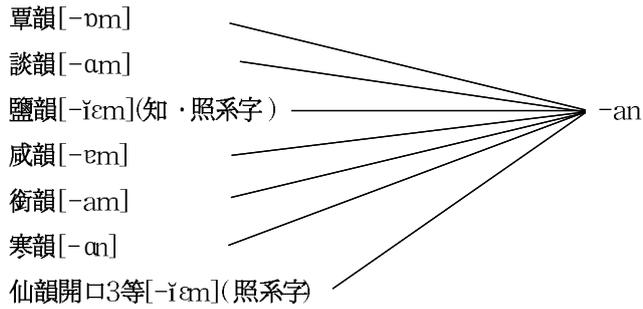
銜韻字를 咸韻字로 주 단 1組의 자료가 銜韻과 咸韻의 합병을 나타내고, 咸韻字를 寒韻字로 주단 1組의 자료와 銜韻字를 刪韻字로 주단 1組의 자료가 銜韻과 咸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반영한다

5. 《廣韻》「嚴」韻과 「先」韻의 합병

先韻字를 嚴韻字로 음을 주 단 1組의 자료가 嚴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되었음을 반영한다.

이상 《問奇集》에서 반영한 [-m]尾의 [-n]尾로의 합병 상황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問奇集》의 直音 형식에서 深攝·咸攝 중 유일하게 「凡」韻의 [-m]尾가 [-n]尾로 합병된 상황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元나라 《中原音韻》에서 《廣韻》의 「鹽」·「添」·「嚴」·「凡」韻은 이미 합병되어 「廉纖」韻⁷⁾이라 하였고, 明나라 《洪武正韻》에서도 《廣韻》의 「覃」·「談」·「咸」·「銜」·「凡」韻이 합병⁸⁾되었다. 元·明 사이에 「凡」운은 이미 開口로 변하여 다른 咸攝의 韻들과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분석한 《問奇集》 자료들에 근거하면, 16·17세기 萬曆년간의 北方官話의 실제 언어에서 [-m]尾가 [-n]尾로 완전히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陳新雄, 《新編中原音韻概要》(初版; 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5), 42·45쪽 참고.

8) 崔玲愛, 《洪武正韻研究》(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 1975.7), 176쪽 참고.

< 參考文獻 >

- 明 張位, 《問奇集》, 《百部叢書集成·寶顏堂秘笈》18(臺北市: 藝文印書館, 1965) 明萬曆繡水沈氏尚白齋刻寶顏堂秘笈本
- 王傳德·周慶德, 《漢語史》(第1版; 濟南, 濟南出版社, 1996.4)
- 陳彭年重修·林尹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初版; 臺北市,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9)
- 宋 丁度, 《集韻》(初版; 臺北市, 學海出版社, 1986.11)
- 金 韓道昭, 《校正五音集韻》(第一版; 北京: 中華書局, 1992.9)
- 王力, 《漢語史稿》(新版; 北京市, 中華書局 1980.6)
- 陳彭年重修·林尹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初版; 臺北市,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9)
- 陳新雄, 《新編中原音韻概要》(初版; 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5)
- 崔玲愛, 《洪武正韻研究》(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 1975.7)

< 中文提要 >

本文以《問奇集》之注音資料考察中國16·7世紀閉口韻尾[-m]消失與否為主要內容。《問奇集》係明萬曆年間碩儒張位為提供學生參考的小學著作, 其中反映北方官話音系。因此可從中考察當時北方官話實際語音的變化趨勢。《問奇集》直音資料當中有關深攝和咸攝的共有六十組左右。茲將筆者觀察其所呈現之音變分析如下:

1. 《廣韻》「侵」韻和「真」韻·「臻」韻之合併

以真韻字注侵韻字讀音之3組資料和以臻韻字注侵韻字讀音之1組資料反映侵韻的[-m]尾併於[-n]尾

2. 《廣韻》「覃」韻·「談」韻和「寒」韻之合併

以談韻字注覃韻字讀音之1組資料反映覃韻和談韻之合併。覃韻字和寒韻

字互注之3組資料和以寒韻字注談韻字讀音之1組資料反映覃韻和談韻之[-m]尾併於[-n]尾。

3. 《廣韻》「鹽」韻·「添」韻和「先」韻之合併

以鹽韻字注添韻字讀音之2組資料反映添韻和鹽韻之合併。鹽韻字和先韻字互注的2組資料和以仙韻字注鹽韻字讀音之2組資料以及以添韻字注先韻字讀音之資料反映添韻和鹽韻[-m]尾併於[-n]尾。

4. 《廣韻》「咸」韻·「銜」韻和「寒」·「刪」韻之合併

以咸韻字注銜韻字讀音之1組資料反映銜韻和咸韻之合併。以咸韻字注銜韻字讀音之1組資料呈現銜韻和咸韻之合併。以寒韻字注咸韻字讀音之1組資料和以刪韻字注銜韻字讀音之1組資料反映銜韻和咸韻[-m]尾併於[-n]尾。

5. 《廣韻》「嚴」韻和「先」韻之合併

以嚴韻字注先韻字讀音之1組資料反映嚴韻[-m]尾併於[-n]尾。

從上述音變特色可歸納出16·7世紀北方官話中[-m]尾完全併於[-n]尾的結論。

주제어 : 閉口韻尾·《問奇集》·雙唇鼻音韻尾[-m]의 소실·16-17세기·聲韻學

